

지역 매아리

부안군, 농기계 사고 제로 농업인 안전교육 실시

부안군은 상서면에 위치한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가을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 교육을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교육참여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 다짐을 했다.

이번 교육은 소형 농기계 이해와 조작이 어려운 관내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고령농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방법과 소형농기계 단순고장 정비 기술 등을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안전한 농작업 실시를 위하여 사고위험 노출 방지와 가을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다짐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하는 현장요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평소 농기계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언제든지 농기계임대점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시행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서 청문실,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조성 홍보에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최근 제도권 밖의 범죄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이전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위하여 위기개입 상담관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한 긴급생계비 지원·학자금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유도·산별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자체 예산이 없어 범죄발생 초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협력단체·기업·직원들에게 기부 받은 범죄피해기금을 그 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일명 '온 더하기'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모금 홍보를 하고 있다.

고창경찰은 이번회의에서 지역 사회단체 등 공익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기업, 소속직원 등을 상대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활발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박정환 서장은 "피해자 보호는 경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유진섭 정읍시장,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구입 물품 복지시설 전달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섰다.

시는 2일부터 11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과 '온누리상품권 구입하기 운동' 등 행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유진섭 시장과 공무원들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고를, 연지, 신태인 3개 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국내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 4개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간 동안 정읍시장 내 부서와 읍면동별로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혼잡없이 시장을 이용하고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장보기 운동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유진섭 정읍시장과 공무원들이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고를, 연지, 신태인 3개 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적극적인 이용 협조를 요청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농협과 전북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현금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과 변동 없이 5%로 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한편, 정읍시 3개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강화와

화재 예방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맞이 대청소의 날 운영, 상인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불가안정 자체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뿐 아니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알뜰하게 제수용품을 준비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서 즐기는 한옥스테이 인기폭발

에피그램, 고창읍성 한옥 2채 위탁받아 홈스테이 운영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한옥에서 즐기는 달콤한 휴식. 여기에 방장산이 내다보이는 뒷마루에서 고창의 제철 식재료를 건강찬 한 끼를 즐기고, 도예강습 등을 받을 수 있는 꿈이 2019년 가을 고창에서 실현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FC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이 '공유'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주제로 고창읍성의 한옥 2채를 위탁받아 6개월간 '올모스트홈스테이'를 운영한다.

2014년 문을 연 고창읍성 한옥 마을은 조선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중앙관리들의 숙소 객사와

사또들의 사적인 생활공간 내아 등을 8동의 건물로 재현해 왔다. 홈스테이 방문객은 방장산이 내다보이는 뒷마루에서 조식을 즐긴다. 복분자와 옥수수, 청보리, 상하목장에서 생산한 요구르트와 유제품 등 건강한 맛으로 꽉 채워진 소쿠리가 배양된다.

체크인 카운터에선 점차 사라져 가는 고창 읍골을 현대적 식기로 재해석한 작품과 복분자 부각, 산운산 야생꽃차 등 고창군과 에피그램이 엄선한 다양한 상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야생꽃차 꿀칭 만들기를 해볼 수 있고, 귀농 CEO들의 단



체인 '청년 벤처스'와 함께 무설탕 푸딩, 전통양갱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읍시, 오는 10일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영화제' 개최

정읍시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오후 6시 정읍 CGV 3층 1관에서 '생명사랑영화제(I love me)'를 개최한다.

'자살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공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번 행사는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 의미를 새겨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5월 위촉된 8개 학교의 '생고생명수호대원' 중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대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어 삶의 희망을 부여하는 생명사랑 동영상과 우울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영화 엑시트(EXIT)가 상영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535-2101)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http://www.jemhc.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9월을 '생명 사랑의 달'로 지정해 7일 오후 1시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우울·스트레스 감

사와 생명 나무 메시지 작성, 체험활동 등의 자살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6일에는 오전 10시 1인 가구 어르신들에게 학생들이 손편지와 정신건강 리플렛을 발송하는 'Love letter' 캠페인이 진행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정일여중과 학생중 앞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을 홍보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생명사랑 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통해 마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읍시민의 정신건강 향상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생명의 전화 ☎1588-9191,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535-2101(주간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재개

식습관 개선·농가소득 증대 기대

정읍시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9월부터 재개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나, 식중독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에 잠시 중단했다.

시는 총 7400여만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34

개교 1213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간식은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받은 과일로 컵 과일 형태로 제공된다. 주 1~2회, 연간 30회 이상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먹거리 제공으로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겠다"며 더불어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뽕짚절단기 농기계 시연 시설하우스 연작 해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4일 시설하우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상서)에서 뽕짚분쇄기 농기계 시연을 실시했다.

시설하우스 토양환경 개선 농기계 시연은 시설하우스 발작물 기계화 이용 촉진과 신기종 농기계의 현장 활용도를 높여 시설내 연작 토양을 개량하여 해충노출을 감소, 딸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시연은 각 뽕짚분쇄기 제작 회사를 초청하여 시연을 실시했는데 트

랙터 부착용으로 운전석에서 유압을 이용, 직접 분사방식으로 30m까지 절단한 뽕짚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안돼 노동력 절감은 물론 하우스나 노지작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뽕짚을 활용 시설하우스 열매질 및 연작 토양 개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진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Includes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